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한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모리따니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또고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수리남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인디아공화국 수상, 모리셔스공화국 수상과 부인, 인도네시아두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또한 원유연사무국 총국장,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을 비롯하여 몽골, 끼르기스, 일본, 도이췰란드, 로씨야, 스위스, 미국의 각계 인사들이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세네갈사회당 총비서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은 허용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스웨리에준비위원회가 1월 19일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떼르 룬드그렌,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릴레비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의 탄생 76돐경축 스리랑카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감파하지루 위원장인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나세카라가, 서기장으로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인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불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연구소 소장 와짐 꾸지민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로므니아준비위원회가 1월 2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쁜쓰딴띤 로따루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얌발라 로렌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잊지 말자, 167만 4 610여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였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167만 4 610여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지구둘레를 근 17바퀴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전국의 1만 4 290여개의 단위를 찾으시였다.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헤치신 그 길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만이 력사에 새기실수 있는 불멸의 창정이다.

참으로 성스러운 길이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림없이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불철주야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전대미문의 역경을 헤쳐나가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길만 하여도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와 맞먹는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현지시찰한 단위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현지시찰을 명예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 일념으로 현지시찰의 길을 걸고있다.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다.

그렇게 이어진 167만 4 610여리였다.

세계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다 바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걸사의 각오와 무한한 헌신성으로 그처럼 때수십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은 국가지도자가 없으며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그 길을 이어간 위인도 일찌기 있어본적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겠다. …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가장 엄혹한 고난의 시기를 헤쳐오신 혁명의 머나먼 려정을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교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격정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끝없는 경모심에 휩싸이게 한다.

더듬어보면 조국땅 방방곡곡에 이어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의 길에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애국헌신의 이야기, 인민사랑의 전설이 수많이 새겨져있다.

천리밖선의 초소길들에도, 이름없는 어촌마을과 협동벌들에도, 공장들과 학교, 유치원들에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새기신 로고와 헌신의 자욱이 수놓아져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고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있어 강대한 오늘의 사회주의 조선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있으며 이 땅의 눈부신 미래와 최후승리가 있음을 사람들이여 잊지 말자.

천만년 무궁토록 전해가자, 167만 4 610여리.

본사기자 전 광 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평양제약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제약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월 31일에 진행되였다.

판게부문, 룡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초급당위원장 리정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와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뼈골에 새겨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룡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약효도 높다고 치하하시면서 우리나라 제약룡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구축해놓은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룡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위생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제품검정과 포장, 보관 등에서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약공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병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새로운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후방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종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공장을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카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질좋고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생산보장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